광주시립발레단 신임 단장에 최태지씨 선정

광주시립예술단체 수장 확정

최태지 단장

유영애 단장

정갑균 단장

최연소 국립발레단장 출신…발레 대중화 이끌어

창극단장 유영애·오페라단장 정갑균씨 선임도

오페라 무대감독 채용 놓고 예술단 노조 성명 시끌

최태지 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이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에 선정됐다. 광주시립발레단 공연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공석상태였던 발레단 등 3개 광주시립예술단체 예술감독 선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올해 처음 청빙제를 도입했던 광주시립발레단과 창극단은 최근 신임 예술감독을 확정, 위촉식을 앞두고 있고 올해 새롭게 출범하는 오페라단은 최근 예술감독 공개채용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최종 발표를 할 예정이다.

20일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김철승, 이하 문예회관)에 따르면 시립발레단장에는 최태지 전 국립발레단장이 선임됐다.

재일교포 출신인 최 단장은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와 지도위원을 거친 뒤 1996년 37세의 나이에 최연소 국립발레단 단장에 취임했다. 2001년까지 3년 임기를 두 번 연임하는 동안 러시아 안무가 유리 그리가로비치 등 세계적 거장들의 작품을 레퍼토리로 만드는가 하면 해설이 있는 발레, 스타 마케팅 등을 통해 '발레의 대중화'를 이끌어냈다는 평을 들었다.

창극단장에는 장흥 출신 소리꾼으로 남원 국립민속국악원 예술감독을 역임한 유영애(전북도 무형문화재)씨가 뽑혔다.

유 신임 단장은 41세에 남원 춘향제 전국판소리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46세부터 남원국립민속국악원에 재직했으며, 47세에 '흥보가'와 '심청가'를 완창했다. 48세에 국립민속국악원 수석단원으로 위촉됐으며, 이후 남원민속국악원 지도위원으로 활동했다.

최근 공모 과정을 진행한 오페라단은 정갑균 전 국립창극단 상임연출가가 예술감독을 맡게 됐다.

정 단장은 2005년 동양인 최초로 세계 3대 오페라 페스티벌인 이탈리아 토레 델라고 푸치니 페스티벌에 초청, '나비부인' 연출로 호평을 받았다. 오페라 '토스카' 등 130여편을 연출했으며 최근에는 광주시립창극단의 작품에 참여하기도 했다.

발레단장과 창극단장의 위촉식은 오는 23일 광주시청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오페라단 예술감독은 연봉협상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조만간 위촉할 계획이다.

한편, 오페라단 무대감독 공개채용과 관련해서는 시립예술단 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문예회관은 지난 2일~4일 서류접수를 시작으로 오페라단의 예술감독과 상임단원 공개채용 전형을 진행, 21일 합격자를 대상으로 마지막 면접 전형을 남겨두고 있다.

노조가 문제 삼는 건 무대감독 후보자다. 노조는 20일 '광주시는 전문성이 결여된 자를 무대감독으로 채용하려는 계획을 즉각 중지하라'는 성명을 내고 "최종 후보자는 무대관련 전문가로 볼 수 없는 지원자로 오페라 작품으로 무대감독 경력이 없으며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전공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무대감독 지원에는 모두 4명이 참여했으며 이번에 단독으로 면접을 치를 후보자와 달리 일부 응시자는 오페라 관련 무대 경험을 다수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번 사태는 회관측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무대 감독을 뽑으면서 "다른 분야와 공통으로 '모집분야에 대한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으로만 자격을 규정한데다 '응시자격에 대한 구체적 해석은 회관 측의 해석에 따른다'는 고무줄 잣대를 적용해 전문성이 결여된 지원자가 후보자로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문예회관은 "무대 감독직의 채용절차는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며 남은 면접도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은재기자 ej6621@

'해양동물 천국' 독도로 모험 떠나자

이춘해 동화 '독도에서 개굴개굴' 출간

독도를 소재로 우리 땅에 대한 주체의식과 아름다운 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형상화한 동화가 출간됐다.

해남 출신 이춘해 작가가 펴낸 '독도에서 개굴개굴'(해드림 출판사·사진)은 아름다운 독도를 배경으로 주인공 청개구리와 갈매기들의 협동과 모험을 흥미롭게 풀어낸다.

동화 속 바위섬인 '독도'는 오래 전부터 해양동물의 천국이었다. 그중에서 으뜸은 바다사자 '강치'였다. 강치는 조선왕조실록에 '가지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가지도는 독도를 일컫는 말이다. 독도에서의 강치 존재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러일전쟁을 치른 일본이 가죽과 고기를 얻기 위해 강치를 마구잡이로 포획하면서 피비린내가 울릉도까지 퍼진다. 결국 수만마리의 강치는 독도에서 멸종되었는데, 이는 살육현장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말해주는 사례다.

동화는 100여년 전 독도의 처참한 현장을 떠나 멀리 도망간 강치가 다시 독도로 돌아온다는 내용이 기본 줄거리다. 바위섬의 대왕 푸른바다거북의 소망은 오래 전 섬을 떠났던 강치들을 만나는 것이다. 마침내 제비의 도움을 받아 먼 나라에서 살고 있는 강치의소식을 듣게 되고, 여러 친구들의 도움으로 도망갔던 강치들이 돌아오게 된다.

저자는 교훈과 재미라는 동화의 본질적인 요소를 살뜰히 담아낸다. 청소년들에게 독도에 대한 주인의식과 애정을 고취하면서도, 곳곳에 유머와 해학을 담아 창작동화 특유의 읽는 맛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춘해 작가는 조선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직생활을 했다. 지금까지 장편소설 '나의 날개로 날고 싶다', '가슴에 핀 꽃', 소설집 '미인은 과속하지 않는다', 태교동화 '러블리 봉봉1·2'등을 펴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소외 지역 '찾아가는 인문학'

참여 도서관 이달까지 모집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다렸던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이 '찾아가는 길 위의 인문학' 시범사업을 통해 도서관과 함께 직접 지역주민을 찾아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한국도서관협회(회장 이상복)와 함께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특화프로그램인 '찾아가는 길 위의 인문학'을 지원한다.

한국도서관협회는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해 우수한 사업계획을 제안한 12개의 도서관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모집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선정 결과는 9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길 위의 인문학' 누리집(www.libraryonroad.kr)과 한국도서관협회 누리집(www.kla.kr) 공고문에서 확인가능하다. 문의 070-8633-8143. /박성천기자 skypark@

황혼 언저리 따뜻한 인간애

박인순 수필집 '어느 날…'

나주 출신 박인순 수필가가 첫 수필집 '어느 날 거울 앞에서'(동산문화사·사진)를 펴냈다.

고희를 앞둔 황혼의 언저리에서 발간한 첫 수필집에는 오랫동안 품어왔던 문학에 대한 열정과 삶을 바라보는 깊이 있는 시선이 느껴진다. 각각의 글에서 지혜와 겸손, 그리고 연륜이 읽혀지는 이유다.

저자는 "오십이 넘어 천명을 알아갈 무렵에야 꺼진 줄 알았던 불씨가 남아 있었던지 문학수업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1만 시간동안 숙성을 시킨 그 열매가 익어 세상 밖에 나오게 되었으나 부끄러운 욕구의 배설일지도 모른다"며 자신을 낮춘다.

작품집은 모두 6부로 나뉘어져 있다. 1부 '부러운 조실부모', 2부 '어느 시인의 직업', 3부 '뿌리를 지키는 사람들', 4부 '망자들의 반상회', 5부 '꽃이라 불리는 명판관', 6부 '세 모녀와 보름달' 등 56편의 수필이 수록돼 있다.

발문을 쓴 장정식 전 '광주수필' 회장은 "그의 작품에는 따뜻한 인간애의 암향을 호흡 할 수 있다"며 "탐구에 의한 지적요소와 깨달음의 문학적 암시가 향기처럼 피어오른다"고 평한다.

박 수필가는 2008년 '수필문학'에 수필과, 2010년 '문학예술'에 시로 등단했다. 현재 광주문협과 서은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아시아문화시민네트워크 기획이사를 맡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고흥군 '송수권 시 문학상' 공모

9월29일까지

고흥군과 송수권 시 문학상 운영위원회는 '제3회 송수권 시 문학상'을 공모한다.

이번 문학상은 서정 시인으로 큰 발자취를 남긴 고흥 출신 송수권 시인의 문학세계와 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9월1일부터 9월29일까지 작품 접수를 받는다.

작품은 2015년 9월1일부터 2017년 8월31일까지 출간된 시집 1권을 대상으로 하며, 대한민국 시인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 희망자는 신청서를 고흥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작품과 함께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통해 보내면 된다.

문학상은 10월 중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본상 1명에 3000만원, 올해의 남도시인상 1000만원, 올해의 젊은시인상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11월 5일 고흥문화회관(김연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문의 061-830-6714.

한편 문학상 시상식과 아울러 시낭송대회도 개최된다. 송수권 시 1편을 암송으로 낭송해야 하면 예선 작품과 본선 작품이 동일해야 한다. 예선은 11월 4일 오후 1시, 본선 11월 5일 오후 1시이며 장소는 공흥문화회관 김연수실과 송순섭실이다.

오는 9월1일부터 9월29일까지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고흥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1-830-6714.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G&J 갤러리' 내년 대관 신청 접수

전남문화관광재단은 2018년도 'G&J 광주·전남 갤러리' 대관 신청을 받는다.

대관료는 광주·전남 출신 작가들의 경우 1주일에 100만원, 타 지역 출신 작가들은 300만원이다.

지역 출신 작가 적용기준은 전남·광주 출생이거나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을 이수한 경우, 전남·광주 지역 대학(원)에서 미술 관련학과를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 전남·광주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하며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관기간은 2018년 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대관일은 1주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남문화관광재단과 광주시립미술관 중 한 기관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전남문화관광재단(www.jact.or.kr), 남도사이버갤러리(art.jeonnam.go.kr) 홈페이지에서 대관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필요서류와 포트폴리오(또는 최근 2년 이내 도록)를준비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 02-2223-2545.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중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구이 와 규 전 문 점
참숯구이 돼지갈비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빼는날 화, 목, 토, 일
- 불빼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AI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한우가격의 2/3
와규 갈비살 20,000원
와규 눈꽃살 25,0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불포화지방산(올리고산)이 대부분인 와규전문점
  - 돼지갈비 이상 메뉴 주문시 찜질방 20% 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